

하나님 어디 계세요 !

우리의 삶이 통제불능입니까?

400 년, 애굽에 갇혀 온갖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간으로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도 그들을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시내광야에 천막을 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그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40 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전진하지 않고 더 지체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정처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려움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3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 1. 기다림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인도가 지연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이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배할 정도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2.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역을 보류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시간입니다.

### 3. 기다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다듬으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으로 지쳐있다면, 하늘을 보시고 과거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징조를 찾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다시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의 기간이 속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답답해 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